

# PET칩, EU 반덤핑 규제 “종료”

## EU 집행위원회, 12년만에 반덤핑 조치 해제 ... 수출 호조 전망

유럽연합(EU)이 한국산 PET(Polyethylene Terephthalate) 칩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종료했다.

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2년간 지속해 온 반덤핑 규제를 2월28일자로 종료했다고 2월29일 발표했다.

PET칩은 음료수병, 생수병 등 플라스틱병 제조에 사용되며, 국내기업의 EU 수출액은 2011년 기준 2억5800만달러에 달했다.

EU 집행위원회는 한국산 PET칩에 대해 2000년 11월부터 반덤핑 규제를 해 왔으며, 2004년 11월 중간재심에서 대한화섬 등 4사에 대해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내렸으나 나머지 기업들에게는 톤당 101.4-148.3유로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판정한 바 있다.

외교통상부는 “국내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온 EU의 조치가 종료됨으로써 PET칩의 EU수출이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2/29>